

‘문화 충격’, ‘문화변용’을 열고 ‘이상향’으로

-김성휘 시인의 작품 세계를 중심으로-

2015급 비교문학 석사 연구생 김미란

1. 들어가면서

낯선 지역이나 낯선 문화를 직접적으로 접할 때 우리는 ‘문화충격’이라는 용어로 그 상황을 표현한다. 이것은 자신의 문화와는 다른 이질적 문화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사물을 파악하는 기본적인 틀이 흔들리는 체험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 개념은 1950년대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관련하여 H.D.Brown은 타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으로서의 ‘문화변용’을 제시했다. 이것을 정의하면서 문화에 대한 흥미에서 출발하여 문화충격의 갈등을 겪고 이를 회복해감으로써 거의 혹은 완전한 극복단계에 이른다는 것이다.¹⁾

역사적 흐름 속에서 다양한 이유로 고국을 떠나 중국이라는 새로운 터전에 자리 잡게 된 중국 조선족과 그 자손들은 이러한 ‘문화충격’과 ‘문화변용’의 과정을 체험하면서 오늘날 중국의 구성원으로서 발전하고 자리 잡아 왔다. 그 지나온 세월 속에 내재된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비애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어려운 여건과 환경을 이겨내고 중국사회의 당당한 국민으로 자리 잡은 조선족의 역사와 현주소는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김성휘 시인은 이러한 특징을 가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문화충격’과 ‘문화변용’을 승화시켜 수구초심(首丘初心)의 아름다운 인간의 본능과 이상향에 대한 향수를 노래한 작가이다.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휘둘릴 수밖에 없는 정신세계를 원초적 감성을 품고 자리를 지켜온 지식인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김성휘 시인의 작품 세계에 대해 문화인류학적 시각으로 연구해 보고자 한다. 당시의 혼재된 사회 상황 속에서 굳건히 자리 잡아간 시인의 사유세계에 관한 접근과 그 정체성을 논해 보고자 한다.

2. ‘문화충격’과 ‘문화변용’

19세기 중엽, 조선의 큰 흉년과 1910년 이후 일본의 강점기 하에서 많은 조선인²⁾

1) 에듀업 원격 평생연구원 출판부,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교육》, 에듀업 원격 평생연구원, 2016, p.p 1-3.

들이 새로운 삶을 찾아서 조국을 떠나 중국으로 이주해 왔다. 어떤 이들은 조선의 독립 운동을 위해 중국의 변방이었던 연변지역을 포함한 중국의 여러 지역에 건너와 자리를 잡아왔다. 또한 청나라 봉금령에 의해 출입이 금지된 국경을 넘어 중국에 와서 몰래 농사를 짓던 사람들도 있었다. 어떤 이유에서든 중국이라는 새로운 터전에서 이들은 생소하고 낯선 삶을 시작해야만 했다. 분명 척박한 땅과 환경 그리고 앞날에 대한 불안감이 뒤섞인 문화 충격의 시간을 보냈다고 보아야 한다. 시인의 조상들도 그렇게 중국의 한 지역에 자리 잡기 시작했을 것이다.

1933년 10월 12일 길림성 룡정시 백금향 방천동에서 출생한 김성휘는 이러한 낯선 ‘문화충격’을 지나 조선인들이 서서히 중국에서의 삶이 정착되어가는 과정 중에 출생했다. 중국에 터를 잡은 조선인들의 생활과 습관 속에는 조국에서의 풍습과 전통이 여전히 살아있었다. 반면에 주변의 중국인들의 이질적인 삶의 영향도 함께 공존한 시기였다. 이 과도기적 시기에 태어난 시인과 그의 주변 조선인들은 ‘문화변용’의 단계로 확장되어 갔을 것이다.

여기서 ‘문화변용’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느 정도 정착한 환경에 동화되어가는 추이와 그 결과를 말하는 개념이다. David S. Hoopes(1979)라는 학자에 의하면 문화 간의 학습과정을 다음의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동화이다. 이것은 제2 문화와 언어, 행동을 우선으로 여겨 자신의 제1문화를 거부하는 현상이다.

둘째, 이중 문화주의인데 이는 두 가지 문화 인성이 발달하는 것이다.

셋째, 다중문화주의로서 학습과정, 의사소통, 인간관계 등 문화 간의 어떤 상황에도 적응 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 발달하는 것이다.

넷째, 적응의 현상으로 몰입하거나 편입되지 않고 그 안에서 편안하게 느끼며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행동 양식에 적응하는 것이다.³⁾

다양한 사연을 품고 고국을 떠나 중국으로 이주한 조선인들의 역사 속에서 ‘문화충격’과 ‘문화변용’을 거쳐 가면서 정착한 사람들 속에서 시인의 성장 과정도 그러했다고 본다. 그리고 두고 온 고향을 향한 끊임없는 바라봄의 추구는 대부분의 조선인들의 정서였다고 본다. 당시의 문학에 등장하는 소재와 내용들이 그러한 점들을 추측하게 한다.

이러한 정신적, 환경적 배경에서 김성휘 시인은 ‘시’라는 문학의 표현 방식을 통해 ‘문화변용’을 딛고 일어서서 고향과 땅을 포함한 자연에 대한 노래를 불렀다. 그것은 위에서 언급한 ‘동화’나 ‘거부’가 아니었다. ‘적응’은 더더욱 아니었다. 그의 시 세계는 인간의 원초적인 삶의 시작인 고향과 자연을 향해 있다. 어쩌면 누구도 모를 이상향을 추구하였는지도 모른다.

2) 일제강점기, 한반도의 사람을 이르던 말. 중국 조선족과는 다른 개념.(daum 한국어사전 참조)

3) 에듀업 원격 평생연구원 출판부,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교육》, 에듀업 원격 평생연구원, 2016, p.4.

3. 김성휘의 작품 세계

1933년 중국 길림성 용정시에서 태어난 김성휘 시인은 심양에서 외국어원을 졸업하고 연변으로 와서 30년간 편집사업과 문학에 관련된 활동을 하다가 1990년에 별세했다. 첫 시집인 《첫 땀(1995)》를 시작으로 《나리꽃 피었네(1995)》, 《들국화(1995)》 등의 시집과 장편 서사시 《장백산아 이야기하라(1995)》, 《흰 옷을 입은 사람아(1989)》를 비롯한 많은 작품을 발표하였다. 그는 이러한 시를 통해 중국 조선족의 깊은 내면을 끊임없이 노래했고 조선족 시문학에 큰 기여를 하였다. 그로 인해 전국소수민족문학상을 세 번이나 수상했다.

석화의 <김성휘의 시 ‘흰옷을 입은 사람아’의 언어학적 분석>이라는 글에서 중국 조선족의 시작품에 흐르는 의식의 특징의 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중국 조선족 시의 한 형태로 나타나는 '바라보기의 시학'은 잃어버린 고향에 대한 그리움, 즉 고향상실의 향수로부터 시작되어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염원과 떠나온 곳으로의 회귀욕망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잃은 것에 대한 회복의 의지는 어떤 구체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그리움의 한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정서에 대한 반응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사실을 시적 상상력으로는 성취가 가능한 고향 회복의 꿈꾸기로 표현된다. 이주 초기에 중국 조선족 시문학에 주로 나타났던 유랑자로서의 비애와 잃은 것에 대한 회복의 의지는 세월이 흐르면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자신들이 삶을 영위하고 있는 새로운 공간에 대한 애정과 고향, 조국, 민족이 일체감으로 어우러지면서 향수라는 하나의 정서로 다시 모여 지고 있다.”⁴⁾

이러한 내용은 위에서 언급한 ‘문화충격’과 ‘문화변용’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제 1세대의 문화적 충격에서 벗어나 2세대, 3세대로 이어지면서 문화적 변용의 과정 중에 동화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는 양태들이 문학 작품 속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새로운 문화와 환경을 수용하고 동화 한다는 것은 그만큼 오랜 세월이 걸리고 쉽지 않은 일이다.

시인은 이 같은 문화적 정착과정을 거치면서 또 하나의 차원을 만들어 내는데 그것이 수구초심(首丘初心)⁵⁾의 단계이다. 즉 변용되어 가는 구성원들 사이에서 현실을 던고 서서 잊혀지는 원초적 고향에 대한 갈망을 작품으로 만들어 냈다. 그것이 실제 시인의 고향이든 아니면 이상향이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화 변용으로 굳어지는 삶의 현장을 뚫고 나와 새로운 세계로의 길을 여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⁶⁾이라는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 갈매기인 죠나단 리빙스

4) 석화, <김성휘의 시 ‘흰옷을 입은 사람아’의 언어학적 분석> 참조.

5) 여우가 죽을 때 제가 살던 굴이 있는 언덕 쪽으로 머리를 둔다는 뜻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르는 말.(daum 국어사전 참조)

6) 참의미를 깨닫기 위해 비상을 꿈꾸는 한 마리 갈매기를 통해 인간 삶의 본질을 상징적으로 그린 소설.

턴 시절의 행동 양상과도 같다고 하겠다.

김성휘 시인의 그러한 몸부림은 많은 작품을 통해 나타난다. 그 중에서 몇 작품을 통해 그의 작품 세계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그리고 시인과 함께 수구초심(首丘初心)의 여행길을 따라 나서 보자. 먼저 그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흰 옷을 입은 사람아(1989)>을 살펴본다. 이 작품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나는 어머니 지어주신 / 흰옷 입고 창가에 앉았다/ 밖은 햇빛 따사롭고 /마음 한구석은 차갑다’

일단 1인칭 시점인 화자는 ‘나’이다. 화자는 행동을 하고 있다. 장소가 침대도 아니고 일터의 책상도 아니고 ‘창가’에 앉아 있다. 창은 안과 밖을 연결하는 중간지점이다. 그 중간지점은 문을 열면 밖으로 쉽게 나갈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시인은 지금 중국의 현실에 살면서 문을 열면 언제든지 밖을 볼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는 출구를 만들어 놓았다.

그런데 ‘밖은 햇빛이 따사롭다’고 한다. 발을 딛고 선 현실에서 바라본 창밖은 바라만 보아도 따스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공간으로 보고 있다. 대조적으로 화자는 ‘마음 한구석은 차갑다’고 읊조리며 현실에 대한 녹록치 않은 상황을 말하려고 한 듯 보인다.

여기서 주의 할 것은 ‘나’는 ‘어머니 지어주신 / 흰옷 입고’ 창가에 앉아 있는 것이다. 여기서 흰옷과 어머니는 석화의 본 작품 평론에 의하면, “ ‘어머니’는 원인의 제공자가 되어 내가 ‘흰옷’을 입을 수 있는 결과를 낳게 한다. 따라서 ‘어머니’와 ‘흰옷’은 동일시된다. 어머니는 모든 것의 모체이자 근원이며, 생명과 고향, 나아가 민족과 조국을 상징하는 이미지이다. 우리가 입고 있는 ‘흰옷’은 어머니가 지어주신 옷으로 나에게 숙명적으로 지워진 삶의 근원이다.”⁷⁾라고 시어를 해석하고 있다. 이것은 김성휘 시인의 배경과 중국 조선족의 역사의 발자취를 알고 있는 독자라면 누구라도 동의 할 것이다.

위의 해석에 더하여 본고에서는 ‘어머니’와 ‘흰옷’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국의 문화라고 해석하고자 한다. 즉, 중국으로 건너오기 전 한반도의 문화와 삶의 여정에서 있는 ‘어머니’로 대명사화 된 조상으로 전제하고 ‘흰옷’을 문화 변용 이전의 자신의 원초적 문화적 상태라고 해석한다. 이어지는 작품의 내용에서도 이러한 시각으로 드러다 보면 문화적 변용에 대한 시인의 갈등을 거울 보듯이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

흰옷 입은 사람 몇이나
세어보면 너 그리고 나
모두 합쳐 다섯 손가락 안팎
하건만 우리는 한집에 못산다

7) 석화, <김성휘의 시 ‘흰옷을 입은 사람아’의 언어학적 분석> 참조.

바람 부는 날 파도 높은 밤
우리는 모두 가슴을 펴며
날 밝기를 기다려 동정 세우고
문패 위에 제 이름 적었다

떠나간 사람 남은 사람
그 마음에 서린 피멍든 사연
어제도 오늘도 굶아가건만
세월은 어찌해 아물구지 못 하나

흰옷 입은 사람아 우습다
해도 물도 우리를 속이었던가
누구보다 깨끗하라 지어주신
흰옷은 왜 더러워졌느냐

차라리 우리 어머님 나에게
검은 옷 지어 주셨더라면
나도 그늘 밑에 시름없이 뒹굴며
도야지 개 신세로 살아가련만

아니 못한다
나는 죽어도 골백번 죽어도
어머님 베틀에 자주신
흰옷은 벗지 못해

흰옷 입고 창가에 앉아
깊은 산 외진 하늘 아래
형제를 그리며 슬피 묻노라
흰옷의 검은 때 언제면 씻으려나.

‘차라리 우리 어머님 나에게 /검은 옷 지어 주셨더라면 /나도 그늘 밑에 시름없이 뒹굴며 /도야지 개 신세로 살아가련만’ 이 표현에서는 새로운 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들이닥친 문화적 충격 이후에 자신들의 삶에 대한 전통과 정체성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읽는 이로 하여금 시인의 마음이 처절하고 안타깝게 가슴에 저며온다. 시인은 계속 다음과 같이 통곡하듯 부르짖는다.

‘아니 못 한다 / 나는 죽어도 골백번 죽어도/ 어머님 베틀에 자주신/ 흰옷은 벗지 못해’ 라고 독백하며 자신에게 타이르듯 주문을 한다. 절대로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인 ‘흰옷’을 벗지 못한다고 한다. 그것은 이미 사회전반에 깔려버린 현지의 문화 동화에 대한 거부라고 볼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동화되어가는 자신을 포함한 중국 조선족 구성원들에 대한 역설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흰옷 입고 창가에 앉아 /깊은 산 외진 하늘 아래 /형제를 그리며 슬피 묻노라 /흰옷의 검은 때 언제면 씻으려나.’ 이 마지막 연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적 벽 앞에서 시인은 ‘흰옷의 검은 때’인 문화적 변용에 대한 마음의 짐을 지고 부담감을 자문하듯 마무리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시에서는 화자는 여전히 출구인 창가에 앉아 있고 어느 때라도 그 창문을 열고 자신이 추구하는 고향 그리고 더 나아가 이상향을 향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놓은 것은 아닐까?

김성희의 또 다른 작품인 <내가 이토록 고향을 사랑함은(1985)>에서도 이러한 고향을 통한 이상향에 대한 그의 작품세계를 만나볼 수 있다. 이 시에서 그는 ‘나는 고향의 산을 사랑합니다/ 나는 고향의 물을 사랑합니다/ 나는 고향의 밭이랑을 사랑합니다/ 나는 고향의 달밤을 사랑합니다/ 나는 고향의 아침을 사랑합니다/ 나는 고향의 어제도 사랑하지만 나는 고향의 내일을 사랑합니다’ 라고 묘사하며 각 연마다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적고 있다. 이어지는 내용들은 구체적인 인물과 사물 그리고 환경들을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얼마나 그의 고향이 아름답고 정겨운 곳인지 눈물겹게 묘사하고 있다. 이 시를 읽다보면 어느 독자라도 이러한 고향으로 달려가고 싶은 공감대를 갖게 된다. 하지만 현실은 그러한 것을 이룰 수 없는 시인의 안타까움이 마무리 되고 있다.

마지막 연에서 시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고향은 내 없이도 고향대로 살찌지 만/ 아, 고향이여 나는 고향이 없이는 / 순간도 살지를 못합니다**’

고향이 없이는 살지 못한다는 애절한 그의 고백은 과연 실존하는 고향만을 이야기 했을까 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이것은 현실 속에서 벗어나 달려가고 싶은 정신적인 이상향을 노래한 것이라고 본다.

그의 또 다른 작품을 통해 시인이 추구한 정신적 여정을 살펴보자. <나는 시냇물(1987)>⁸⁾이라는 시의 첫 연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하얀 자갈을 굴리며/ 파란 이끼를 핥으며/ 두만강에 흘러드는/ 나는 시냇물**’

자신을 두만강에 흘러드는 시냇물이라고 노래를 시작한다. 그 후에 이어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두만강을 부르며 나는 흐른다, 나는 새벽을 열어간다, 낮이면 아이들과 자맥질도 같이하며, 두만강을 밀고 가는 배잡이 시골둥이, 오, 나는 죽어서 돌아오리.**’ 이렇게 하고 싶은 자신의 의지를 매 연마다 묘사하고 있다. 즉, 화자인 시인이 시냇물이 되어 고향을 훑어가듯 돌아보고 고향의 모든 것과 함께 어우러지고 끝내는 파도에 안겨서 죽어서 돌아오고 싶은 소망을 노래하고 있다.

마지막 연에서 그는 이렇게 노래한다.‘**한 점의 구름으로 날아올라/ 어머니 강기슭에/ 실비로 쏟아질/ 나는 시냇물**’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죽어서 돌아온 자신이 마지막에는 비가 되어 어머니의 기슭으로 묘사되는 고향에 실비로 쏟아지겠다는 강력한 수고초심의 의지가 나타나 있다. 이것은 앞에서 묘사한 ‘문화충격’ 이후의 ‘문화변용’의 단계와는 또 다른 차원의 세계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읽어지는 것

8) 김웅준, 《수작으로 읽는 우리 시 백년》, 연변인민출판사, 2014, p.p.91-92.

이 고향은 단순한 고향의 의미가 아니라 시인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향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짚어내게 된다.

또한 <돌아오라(1987)>⁹⁾를 보면 김성휘 시인이 추구하는 고향과 그것이 이상향을 향한 갈구임을 알게 된다. 시는 이렇게 시작한다. ‘오고 싶지 않아도/ 돌아오라/ 가고 싶어 갔어도/ 돌아오라.’ 어떤 이유로 떠나갔든 무조건 다시 그곳으로 돌아오라고 강조한다. ‘그곳’은 시에 나타난 용어로 ‘에덴동산’이다. 이것은 고향의 원초적 표현이며 가장 이상적인 장소이다.

이 시에 대한 해설을 인용하면 ‘1987년에 쓴 이 시는 굽은 길을 돌던 기구한 역사를 종말 짓고 에덴동산으로 가는 새로운 시대를 절절히 호소한다. 새들도 돌고 강물도 돌고 나무도 돌고 산도 돌고 너도 돌고 나도 돈다는 ‘돌다’의 반복적인 이미지로 곡절 많은 역사를 표현하고 우리 모두의 ‘하얀 빛깔’의 이미지는 겨레의 단합을 상징한다. 한 시대의 변혁을 감명 깊게 보여준 수작이다.’¹⁰⁾라고 시를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김성휘 시인은 고향과 자연의 어울림으로 시를 써나갔으나 거기에는 현실에서 벗어나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정신적인 공간 즉, 이상향을 추구하고 있음을 눈여겨보게 된다.

4. 나아가며

인간은 새로운 환경과 문화에 접했을 때 일반적으로 ‘문화충격’을 받게 되고 그 과정을 겪으며 그 대상에 맞추어 ‘문화변용’을 하게 된다. 중국에 정착한 조선인들이 중국 조선족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 났음을 역사는 증언하고 있다. 이 흐름에 속해 있던 김성휘 시인은 문화적 정착의 과정 속에서 또 하나의 길을 찾아냈다.

그것은 바로 문학을 통해 정신적인 위안의 길을 만들어 냈다. 자연과 고향을 시 작품 속에 끌어들여 원초적인 이상향을 향한 수구초심(首丘初心)을 노래했다. 이러한 작업을 거듭하면서 시인은 현실세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잡음과 갈등을 풀어나간 듯하다. 더구나 어머니의 땅을 떠나서 새로운 환경에서 자리 잡아 가며 생기는 ‘문화변용’의 부작용을, 작품 속에서 고향의 이미지와 자연의 소재를 사용하여 자신의 사유 세계를 한껏 풀어냈다.

그래서 그의 작품 속에서는 ‘문화충격’에 대한 호소와 ‘문화변용’에 대한 갈등과 동화 그리고 정신적 수구초심(首丘初心)이 다 드러나 있다. 이미 작고한 작가인 김성휘 시인의 작품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작품 속에서 강력하게 반복되는 고향에 대한 갈구, 즉 이상향을 향한 작가의 끝없는 손짓에 독자들이 반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9) 위의 자료, p.p.90-91.

10) 김웅준, 《수작으로 읽는 우리 시 백년》, 연변인민출판사, 2014, p.91.

한국의 문학 평론가 이어령은 ‘시는 언어로 세운 집’이라고 말했다. 시를 읽고 이해하며 해석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집의 외부만을 보아서 안 되고 내부에 들어가 그 속에서 집을 바라보는 것이 함께 되어야 제대로 본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언어로 세운 집’ 전체를 투시하고 그 내부와 외부를 동시에 바라볼 수 있는 요술 거울 같은 시각으로 시를 보아야만 시를 제대로 읽고 이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¹¹⁾

김성휘 시인의 작품을 바라볼 때 이러한 점을 챙겨볼 필요가 있다. 눈과 귀를 열어 외벽과 같은 중국과 한국 근대사의 배경을 바라보고, 시인이 가지고 있던 사유의 세계와 작품에서 말하고자 했던 내면의 모습으로 동시에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뒤에야 본고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문화충격’을 벗어나 ‘문화변용’의 단계에서 코드 전환을 하여 이상향을 향한 시인의 강렬한 추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참고 자료

- 【1】 김응준, 《수작으로 읽는 우리 시 백년》, 연변인민출판사, 2014.
- 【2】 이어령, 《언어로 세운 집》, arte, 2015.
- 【3】 에듀업원격평생연구원 출판부,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교육》, 에듀업원격평생연구원, 2016.
- 【4】 김성휘, 《흰옷 입은 사람아》, 정음문화사, 1989.
- 【5】 김성휘, 《장백산아 이야기 하라》, 동광출판사, 1989.
- 【6】 석화, <김성휘의 시 ‘흰옷을 입은 사람아’의 언어학적 분석>, 2010.

참고 사이트

www.daum.net

11) 이어령, 《언어로 세운 집》, arte, 2015, p.p.6-11.